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 세션 12, 생식 기술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2, 생식 기술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논의할 다음 이슈는 생식 기술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특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식 기술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인공수정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궁내수정 또는 IUI 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인공적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gift라고도 함)이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서 여러 개의 난자를 추출한 다음 남성의 정자와 함께 여성의 난관에 넣는 것입니다.

시험관 수정은 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IVF는 난자를 실험실에서 수정한 다음,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합니다. 또는 ZIFT라고 하는 것에서 배아를 나팔관에 이식합니다. 또는 접합자를 나팔관에 이식합니다.

그리고 대리모에서 제3의 여성이 임신을 위해 아이를 임신시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대리모는 IUI 또는 IVF 를 통해 임신한 다음 임신을 위해 아이를 임신시키는데, 사용된 난자에 따라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공리주의나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의 행복만 고려하면 되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이나 즐거움만 고려하면 되는데, 대리모라면 어머니, 아버지, 대리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태어난 아기의 미래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칸트 윤리의 경우,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의 자율성, 사람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행을 보편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관행도 고려해야 합니다.

Scott Ray는 고려할 만한 도덕적 매개변수와 다양한 다른 고려 사항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의료 기술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성한 형상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온갖 기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그것은 신의 축복입니다.

기술은 선한 목적으로도 악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성찰할 때, 우리는 기술을 악한 목적보다는 도덕적인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생식은 하나님께서 이성애적, 일부일처제적 결혼의 맥락에서 일어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의 성, 인간의 성,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셋째, 생명의 신성함과 태아의 도덕적 지위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논의에서 말했듯이, 성경적 관점에서 태아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 원칙은 태아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입양은 이러한 생식 기술을 선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대안입니다. 입양을 선택하는 수백만의 부부에게 확실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그렇지 않으면 잘 돌보지 못했을 아이를 입양할 때 매우 구원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아이들은 신의 선물입니다. 생식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신이 하는 일이며, 특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미덕입니다. 이것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부부에게 확실히 신앙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회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커플에게는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기술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우리만의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일까요? 언제쯤 우리는 입양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 저는 회원인데,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은 그냥, 글썄요, 우리가 우리만의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입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형태의 사역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역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도전적인 신앙의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개신교도가 반드시 인정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고려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로마 가톨릭 신학적 구별점 몇 가지입니다.

하나는 섹스와 생식의 통합이라는 생각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적 전통에는 부부의 성관계는 항상 생식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규범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항상 아이를 가질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식에 대한 개방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인공적인 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술과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수반합니다. 리듬법이라는 것이 승인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기 통제를 통해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이 더 높은 시기에 성관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성행위와 생식 사이에는 훨씬 더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고 확인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기술의 적절한 역할 측면에서 의료 기술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도울 수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러한 생식 기술 중 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이러한 생식 기술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도덕적 문제입니다. 자궁 내 수정 및 시험관 수정, GIFT, GIFT, IVF의 경우 배란 약물 사용, 때로는 IUI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생산되는 4, 5, 6명의 많은 수의 다태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어머니와 아기 모두에게 높은 위험을 초래하고 어린이의 생명이 손실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험관 수정이 수행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수만 달러를 쓰고, 이 배아를 갖게 되면 이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 적어도 한 번은 이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수의 배아를 삽입하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험관 수정 과정과 이 모든 배아의 생산을 통해, 이제 부부가 두세 번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냉장 보관 중인 다른 배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배아와 불필요한 배아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파기하거나, 기증하거나, 무기한 보관하거나,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실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재정적으로 위험한 해결책은 임신 기간 동안 기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배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부부와 이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고, 특히 한 부부는 이것이 우려 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젊은 기독교 부부였고, 사용되지 않고 죽은 배아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맞죠? 그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권고한 것은 그들이 만든 배아나 시험관 수정을 통해 임신한 배아를 모두 사용하여 이식하고, 모든 배아가 이식되어 임신하여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번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합은,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여러 번의 이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한 번에 세 개나 네 개 정도를 했고, 그들은 확실히 모든 이식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번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15명이나 16명의 아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이나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배아를 이식했기 때문에, 냉동 보관된 배아는 하나도 없었고, 사용되지 않은 다른 배아는 어떻게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약 4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가족일지도 모르지만,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존중심에서, 우리는 8명이나 9명의 아이를 두더라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소 주저하며 추천한 접근 방식입니다. 일부 프로라이프론트들은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 방법의 사용을 완전히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추천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대리모에 관해서는 훨씬 더 문제가 있습니다. 생식 과정에 제3자를 개입시킬 때, 대리모에 반대하는 표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리모가 아기를 임신할 때까지 낳는 대가로 일정 금액, 심지어 3만 4천 달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를 상품으로 만드는 착취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 언니에게 대리모를 부탁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가족 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익에 대한 우려나 동기가 없지만, 그것이 관련된 경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취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대리모가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악덕을 미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법률은 실제로 대리모를 인간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서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악덕으로 이해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확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모가 방금 낳은 아이를 기꺼이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악덕을 미덕으로 바꾸거나 악덕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행은 그 이유로 도덕적으로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대리모는 마음을 바꾸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애착을 갖게 되어 아이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는 대리모의 경우 많은 갈등과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일으켰습니다. 이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리모가 아기와 관련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인정해야 합니까? 이는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적 고통도 포함되며, 그녀가 아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결론적인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성과 생식의 강력한 분리에 있다는 것이 옳았을까요? 이런 이유로 결혼한 부부는 항상 임신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할까요? 개신교 세계에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50~60년 동안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피임약이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1960년대 초에 피임약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복음주의자의 95%가 피임약에 반대했다고 읽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은 숫자가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의 대다수는 피임약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이 특정 관행이 복음주의 커뮤니티의 관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60년대에 훨씬 더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섹스와 생식 사이의 일종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인식했고, 피임약이라는 개념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충격적이지만, 그런 다음 우리는 그 개념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는 문화적 발전입니다. 비키니 수영복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고, 그것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옷을 색칠한 다음 합법적인 수영복 복장으로 제시했고, 지금은 비키니에 대한 불평을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 이유로 모든 종류의 도덕적 고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들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불임 문제를 다루는 데 드는 재정적, 정서적 비용이 금지적인 시점은 언제일까요? 부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는 부부는 대신 입양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비싸서 입양하자고 말할까요? 물론, 입양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쌉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재정적 의무가 너무 과중할까요? 그리고 언제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의 비용이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거나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시사할까요? 저는 목사님의 경우, 재정적 차원이나 중요한 고려 사항이 결국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우리 사회가 자녀를 주님의 축복으로 보는 시각에서 오히려 부담이나 권리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권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적어도 많은 경우, 자녀는 부담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낙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에 따른 토론에서 청중 중 한 여성이 임신을 교통사고에 비유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그것을 교통사고와 비슷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정자살균제가 실패한 결과로 제가 임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심리적 관점에서 교통사고의 산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부담으로, 출산을 부담으로, 임신을 부담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권리로 보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매우 다른 관점을 취하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태도이고, 그것은 재고되어야 할 많은 생식 기술에 대한 일종의 비판 없는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 또는 개인 기독교인으로서 출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생식 기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생식 기술입니다.